남원 우수 농·특산물 뉴질랜드 시장 개척

시, 오클랜드서 29일까지 판촉전…교포신문 등에 홍보
‘춘향애인’ 배·‘남원참미’ 쌀 등 현지 마트서 시식·시음행사

남원산 농·특산물이 뉴질랜드 진출에 성공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9일까지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남원산 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나섰 다.

이번 뉴질랜드 판촉행사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바이어와 상담한 후 남원의 우수 농·특산물 25t(5000만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이뤄졌다.

남원원예농협에서 선별한 ‘춘향애인’ 배와 남원농협 RPC의 ‘남원참미’ 쌀을 비롯해, 만두, 추어탕, 김부각, 잡채, 누룽지, 참기름, 청국장, 떡볶이, 도토리묵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선보이고 있다.

시는 이번 판촉행사를 위해 뉴질랜드 교포신문과 중국 화교 신문 등 5개 일간지에 홍보하는 등 뉴질랜드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꾀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뉴질랜드 현지마트인 한양유통 글렌필드점, 알바니점, 핸더슨점 3개 매장에서 열리는 시식 및 시음행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시는 이번 판촉행사를 계기로 뉴질랜드와 인접한 호주시장 수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올해 파프리카와 배, 양파, 멜론, 포도 등 신선농산물과 만두, 음료, 면, 차, 추어탕, 김부각, 떡볶이, 잡채 등의 가공식품을 미국은 물론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에 2000만 달러 이상 수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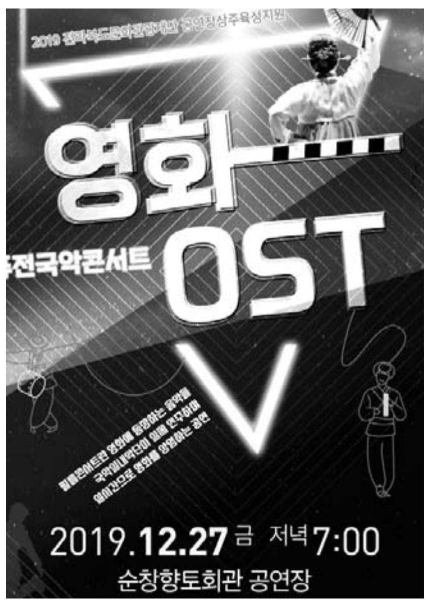
남원시 관계자는 “2020년에도 수출물류비 지원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매장 판촉행사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수출시장 공략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뉴질랜드 오클랜드 현지마트인 한양유통 글렌필드점에서 29일까지 남원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판촉전이 열린다. <남원시 제공>

순창군, ‘문화포럼 나니레’ 올 마지막 공연
‘퓨전국악콘서트’ 오늘 향토회관 진행

순창군이 27일 오후 7시 순창향토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상주단체인 ‘문화포럼 나니레’의 ‘퓨전국악콘서트’를 연다.〈포스터〉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가능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일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리는 퓨전국악콘서트는 친숙한 영화나 드라마를 편집하여 영상을 시청하면서 우리 전통 소리와 악기를 활용하여 주제곡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연을 주관하는‘문화포럼 나니레’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시군 상주단체 공모사업’에 순창군과 협약을 통하여 2019년 순창군 상주단체로 선정됐다.

지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장화홍련’을 시작으로 9월 어린이 공연 ‘빨간모자와 숲 속 친구들’, 지난 13일 순창군 대표 음식인 고추장과 신말주 선생님을 소재로 한 창작소리극 ‘항아리 아씨전’을 무대에 올리며 군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문화공연과 별개로 금과초등학교에서 ‘소리 꿈나무를 찾아서’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항아리 아씨전’공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색다른 퍼블릭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고품질 쌀은 건전한 토양관리에 달렸어요”

정읍시, ‘단풍미인쌀’등 품질 향상 ‘건강한 땅 만들기’ 교육

정읍시가 단풍미인 쌀 품질 향상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땅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단풍미인 쌀 생산 농가와 일반 농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단풍미인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농약·화학비료 과다사용과 영양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토양을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해남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 교수가 쌀 품질 향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관리와 비료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했다.

현 교수는 토양환경화학을 전공하고 토양 내 농약의 행동과 토양의 물질흡착 특성, 토양분석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토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교육은 모든 작물 재배의 기초가 되는 토양관리법과 유기질 비료와 식물 양분의 이해, 농가가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퇴비차’ 만들기 및 사용법, 좋은 비료 고르는 방법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장 컨설팅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높은 만족감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료를 직접 가져와 올바른 비료 사용법과 양질의 유기질 비료 선택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건전한 토양관리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업인과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더욱 실용적인 현장 중심의 컨설팅 교육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포상금 700만원을 받는다.

우수 기관 선정은 ▲기관장 관심도 및 타부서 협업사례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지원 사항 및 집행율 ▲친환경차량 보급 및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간담회 개최 등 홍보실적 ▲시·군 자체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부문 14개 지표로 진행됐다.

평가에서 군산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등 저감사업 예산규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기차 보급, 건설공사장 관리, 도로청소차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 높게 평가됐다.

시는 내년에도 올해 중점 추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부서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청년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자 접수

내년 1월 22일까지…대상자엔 영농정착자금 등 지원

익산시가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은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고 미래 농업 인력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육성된다.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0.1.1~2002.12.31),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2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같은 해 3월 30일 발표된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안정을 위해 월 80만원~100만원씩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3억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0년~2002년),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시 최대 3억원 한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2%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거치 기간은 지난해까지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오는 2020년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변경돼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익산농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에 맞는 참신한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군, 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 ‘우수’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전한국 훈련 평가는 재난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실시됐다.

이 평가는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2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현장·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중앙평가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읍 소재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진, 방사능 누출에 따른 제염(除染)활동과 건물 붕괴에 따른 화재, 복합재난 등을 설정해 소방서, 경찰, 군부대, 병원 등 12개 유관기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평가는 훈련 기획, 설계, 실시, 평가·환류 등 4개 분야 24개 지표에 따라 사전·현장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토론훈련 진행, 상황대응, 민관군의 협력체계 구축, 현장기반 훈련,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등에서 높은 점수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